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7 November_Vol.178





Cover story

기업과 동행하는
Global Business Partner,
삼정KPMG

바야흐로 국경 없는 경제 시대입니다.
국경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세계 경제는 국제화가 진행되었고,
우리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삼정KPMG는 거대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Globalization을 위해
152개국의 KPMG Global Network를 활용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업과 동행하는 Global Business Partner가
바로 삼정KPMG입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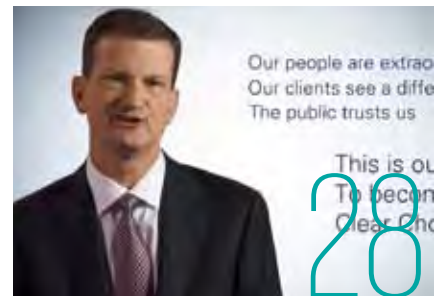
November 2017 Vol.178 삼정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I**
'2017 삼정KPMG GKP Conference 개최'
- 06 **Issue Focus II**
KPMG 미국 &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
- 08 **Team Story**
삼정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
- 10 **Client+**
르노삼성자동차
- 12 **Market Reader**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 14 **Expert's Advice**
원가절감의 새로운 고려 요소 '관세'에 대한 모든 것!
-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7 **Culture Relay**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 18 **인재양성소**
FY17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스토리
- 22 **Talk+Play+Love**
동료들과 함께한 봉사활동 체험기
- 24 **행복충전소**
가족 & 동료와 함께 만든 삼정인의 행복한 이야기
- 26 **Culture & Etiquette**
Brother Country, 터키의 문화와 에티켓
- 28 **KPMG Story**
'전 세계 KPMG 구성원을 이어주는 KPMG Story!'
- 30 **Samjong News**
삼정KPMG,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동주최 및 심사위원 참여 외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Globalization 전략 방안 위한 협업 도모 '2017 삼정KPMG GKP Conference 개최'

삼정KPMG는 지난 10월 16부터 18일까지, '2017 삼정KPMG Global Korea Practice Conference'(이하 2017 GK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각 나라의 전문가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이슈에 따른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2017 GKP 컨퍼런스', 韓 기업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FTA 재협상,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삼정KPMG는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시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전 세계 22개국 30개 KPMG 오피스에 Korea Desk를 설치, 35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전 세계 152개국 KPMG Global Network와의 협업 강화 및 현 이슈 진단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매년 가을 'GKP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2017 GKP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KPMG 파

트너 및 멤버, Korea Desk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논의를 펼쳤다. 삼정KPMG 김교태 CEO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 GKP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 열린 GKP 컨퍼런스는 고객의 방문 기회가 더 확대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에 따른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 한다. 또한, GKP 멤버들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기업의 Globalization 지원을 위한 GKP Network 강화

'2017 GKP 컨퍼런스'는 '기업의 Globalization 지원을 위한 Global Korea Practice Network 강화'를 주제로 삼아, 삼정KPMG Account Lead Partner와 전 세계 Korea Desk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현지 전문가들이 한국 고객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

“
GKP 멤버들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November 04+05



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각 Korea Desk에서 제공
한 고객 서비스 지원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
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각국의 회계 및 세무 동향에 대한 정보 및 국
가별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의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기
업별 맞춤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GKP 컨퍼런스는 지난해 대비 고객사 미팅을 확대하여 국내 주
요 기업 30여 곳을 방문했다. 기업이 안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해,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처음 'GKP 컨퍼런스'에 참석한 KPMG 독일의 줄러 헨리 이사는
“GKP 컨퍼런스 참석으로 인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가장 흥미로웠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을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GKP Network 확대로 기업 세계화에 앞장설 것

삼정KPMG는 '2017 GKP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내 전문가와 Korea
Desk 현지 전문가, 또 KPMG 글로벌 리더들 간의 한층 강화된 협업
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을 계
획이다. 특히,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
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GKP Network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베트남 하노이 Korea Desk를 비롯하여, 추후 인도 벵
갈루루,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Korea Desk를 설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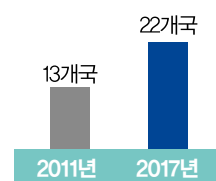
‘GKP 컨퍼런스’ 외에도 지역별 컨퍼런스를 개최해 고객사의 이슈와
협업 방안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9월에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Korea Desk에서 ‘TP 관세 세미나’를, 10월에는 IFRS15 도입

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Korea Desk가 현지 진
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IFRS15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선진
화 기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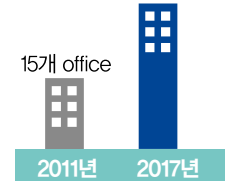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힘쓰는 삼정KPMG GKP!

삼정KPMG Global Korea Practice는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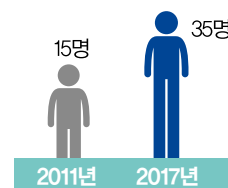
Korea Desk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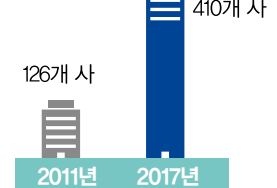
Office



파견 전문가



고객사



CONTACT US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Tel. 02-2112-0788 / E-mail. kshin@kr.kpmg.com

BD&MARKETS 윤호돈 MANAGER

Tel. 02-2112-3449 / E-mail. hyodonyoon@kr.kpmg.com

최대 규모와 인력으로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KPMG 미국 &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

삼정KPMG는 전 세계 22개국 30개 KPMG 오피스에 Korea Desk를 설립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Korea Practice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중 최대 규모의 KPMG 미국과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를 소개한다.

**35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한국 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PMG 미국, Korea Practice!**
KPMG LA 김준경 대표

Q. KPMG 미국의 Korea Practice를 소개 한다면?

KPMG 미국의 Korea Practice는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1982년 8월 뉴욕 사무소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약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비롯해 파트너 12명을 포함한 총 200명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Big 4 회계 법인 중 가장 큰 규모이며, LA와 뉴욕, 애틀랜타에서 Audit, Tax, Advisor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KPMG 미국의 Korea Practice는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미국 내 한국 기업과의 경험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Needs를 쉽게 파악하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PMG 미국 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기업



KPMG 미국, Korea Practice 파트너 및 이사 등이 모여 환하게 웃음짓고 있다

의 요구 사항을 밤낮으로 수시로 신속하게 대응하며,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국 기업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 이슈들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고민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야 합니다. KPMG 미국 Korea Practice는 기업들에게 산업별 경제 상황 및 이슈에 대해 빠르게 안내할 수 있는 매거진 KNet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세무 및 기타 비즈니스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기사 및 전문가 의견, 우수 사례,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이 혁신 기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및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고객이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하트 손동작을 만들어 보인 KPMG 중국 Korea Practice 파트너 및 이사들의 모습

한국 기업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KPMG 중국, Korea Practice! KPMG 북경 김준교 파트너

Q.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를 소개 해주신다면?

KPMG 중국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타 회계법인과 달리 중국과 홍콩을 통합한 단일 조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0여 명의 파트너와 11,000여 명의 전문 직원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선전, 청두, 칭다오, 푸저우 등 16개 사무소에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KPMG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요성과 기업 문화의 특수성을 인식해 25년 전, 중국 최초로 Korea Practice를 설치해 한국 기업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Desk 역시 중국 내 각 사무소에 설치하여, 한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Q.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중국 자회사 및 본사, 본사 감사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국사업관리에

대한 실용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는 한국인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상황에 적합한 해법을 소통에 장애 없이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 한국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실무 사례,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합니다. 축적된 경험/사례를 공유하여 복잡, 통찰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하고 실용적인 대안/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합니다.

Q. 한국 기업과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KPMG 중국은 중국에서 최초로 Korea Practice를 설립했기에,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정KPMG와의 협업 시너지로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정 KPMG와의 협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상장이었고, 상장 자문사로도 KPMG가 최초였습니다. 이후 2개의 한국 기업도 상장하게 되었습니

다. KPMG와 고객이 함께 최초를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KPMG 중국의 Korea Practice는 앞으로도 감사, 세무, 상장, 경영위험관리서비스, 구조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당면한 통관, 외환, 세무 및 기타 준법 위험에 대한 자문과 대응 방안에 자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전문 인재를 확보하여, 한국과 중국, 홍콩을 다면으로 고려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규 Korea Desk!

베트남 하노이 Korea Desk를 소개합니다

Q. 하노이 Korea Desk를 소개한다면?

KPMG 베트남은 호치민(1군, 7군), 하노이, 다낭 그리고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각각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Korea Desk는 2011년부터 호치민 오피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학 매니저

최근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회계, 법률 및 세무 자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KPMG 베트남은 올해부터 하노이 오피스와 호치민 오피스에 각각 Korea Desk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첫 Korea Desk인 만큼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에서의 업무와 생활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타공인 국내 No.1 부동산 세무 전문가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집계한 부동산 서베이에서 2015,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 최우수 세무자문 마켓리더'에 선정, 3년 연속 수상을 통해 Market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양질의 부동산 세무 자문을 제공 중인 국내 최고의 부동산 세무 전문가,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을 소개한다.

부동산 관련 모든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펀드·세무팀

날로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규정은 해마다 개정되어 왔고, 관련 해석, 심판례 및 판례 등이 생성, 변경되면서 납세자가 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삼성KPMG는 다른 회계법인보다 앞서 산업별 전문화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타 경쟁사보다 이른 시기에 부동산 세무 전문팀을 출범시켰다.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은 부동산 펀드팀과 부동산 세무팀으로 구성되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세무팀은 국내 대단위 부동산 시설 개발,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은 구역단위 개발, 지방세 등에 특화된 세무 자문을 위한 전담팀으로,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

은 세무 전문가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및 개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개발 및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의 초창기인 10여 년 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의 실무 업무부터 모의세무조사,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수감지원 업무 등의 전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 깊이 있는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펀드팀은 국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기구 및 투자구조 자문과 취득부터 매각까지 고려해야 할 국세·지방세에 대한 자문,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현지 세무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수년간 축적한 다양한 경험은 현재 고객에게 적합한 자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향후 고객을 위한 최적의 대안까지 제시하며 그 차별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 주요 서비스

▶ 부동산 세무팀

부동산 매매업 & 개발업 자문

- 공장용부지(산업단지), 창고용 부지(물류단지), 관광유통시설용 부지(관광단지) 조성사업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골프장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 부동산 신탁(토지, 담보, 관리신탁)

일반기업

- 업무용 시설 건설을 위한 취득: 취득세 중과, 대수선 간주취득 검토
- 공장용 건물, 창고용 건물 취득: 감면 여부 검토
- 회사 부속시설 건설을 위한 취득: 기업부설연구소, R&D센터, 연수시설, 기숙시설 건설목적
- 취득의 원인: M&A 거래, 펀드투자, 대물변제, 기부채납을 위한 취득
- 보유세 절감 프로젝트: 회사가 투자목적용으로 보유하거나, 사업목적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 상당한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한 재산세 절감용역 수행
-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지방세 과세관청의 세수확보목적에서 부동산 취득 후 곧바로 지방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많음
- 지방세 자문기능: 예규, 진단, 실사, 투자기간 Cash Flow 분석

▶ 부동산 펀드팀

국내외 부동산투자기구의 투자 관련 세무자문

- 국내외 부동산투자기구의 Inbound/Outbound 투자 관련 세무 자문
- 부동산 투자구조 자문 업무(Structuring 업무)
- 최적 투자기구 선정을 위한 자문(REF YH, REF Trust, PFV 등)
- 투자단계별(설립/운영/매각단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 및 세액 효과에 대한 세무 자문
-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세무 자문

부동산 투자기구의 상시 세무자문

-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취득세 신고업무 및 관련 세무 자문
-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련 세무 자문
- 부동산투자기구의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업무
- 국가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세무 자문

부동산 투자 관련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등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 지방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업무(취득세, 재산세 등)

First Mover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부동산 펀드·세무팀 될 것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KPMG 내 타 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한 세무 업무 창출을 위해 경주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되거나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당국이나 다른 법무/회계법인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여,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

정이다.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은 고객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미리 고민하여 부동산 세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전형적인 First Mover의 모습을 보여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팀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리더와 팀원들이 모여 힘찬 파이팅을 외치는 부동산 펀드·세무팀

삼성KPMG 부동산 펀드·세무팀의 최고의 장점은?

“삼성KPMG 부동산 펀드팀은 많은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고객의 Needs에 맞는 최적화된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을 자부합니다. 또한 152개국에 걸친 KPMG 글로벌 부동산팀 네트워크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부문에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부동산 펀드팀 오상범 전무(팀 리더)

Tel. 02-2112-0721 / E-mail. sangbumoh@kr.kpmg.com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그 목표로 업무를 진행해 온다는 점이 그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류나 부당하게 과다 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환급 받아오는 업무에 있어서 국내 No.1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과거 실제 성공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펀드팀 김동훈 상무

Tel. 02-2112-0938 / E-mail. dskim@kr.kpmg.com

“특정 세목 및 사안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부동산 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세무팀의 강점입니다.”

부동산 세무팀 홍승모 이사(팀 리더)

Tel. 02-2112-7674 / E-mail. seungmohong@kr.kpmg.com

“최근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을 수행했으며, 대응 전략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한 덕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동산 관리업체인 S사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건축물의 소유법인인에게 우리 부동산 세무팀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팀은 고객 만족을 넘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부동산 세무팀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무팀 이재룡 S.Manager

Tel. 02-2112-7637 / E-mail. jaeryonglee@kr.kpmg.com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창조하는 르노삼성자동차

2000년에 출범하여, '고객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품질 DNA를 계승하고 있으며, 16년 연속 판매서비스만족도 1위(2017년 컨슈머인사이트 조사)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고, 최선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만나본다.

르노삼성자동차

SAMSUNG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세터로 자리매김하다!

2000년 9월 1일 출범한 르노삼성자동차는 2016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4위의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르노삼성자동차만의 독자적인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가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및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품질 우선 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시 강서구에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는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구매, 품질 등이 통합된 종합 자동차연구개발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97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467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16년 출시한 SM6는 세그먼트를 뛰어넘

는 우수한 감성 품질과 혁신 요소를 고루 갖춘 진정한 프리미엄 중형 세단으로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실적을 주도했다. 동급 경쟁 차량의 경우,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 LPG 차량과 법인용 차량의 판매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고려하면, SM6에 대한 일반 고객의 사랑은 더욱 확연하게 돋보인다. SM6가 중형 자가용 승용차 판매 순위에 있어, 실질적 수위권을 유지하며 고객의 사랑을 담백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2016 올해의 안전한 차'와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를 수상하며 안전과 디자인, 상품성까지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QM6는 출시 2달 만에 중형 SUV 시장에서 경쟁 차량을 제치고 단숨에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륜 구동이 (2WD) 일반적인 국산 중형 SUV 시장에서, 4륜 구동인 (4WD) QM6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SUV에 대한 고객 인식을 재정립했다. 세계 80개국으로 널리 수출되는 QM6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주인공은 한국의 르노삼성자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리미엄 중형 SUV QM6

동차이다. 차량 연구개발의 90% 이상을 르노삼성자동차가 주도적으로 담당했으며,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내 최고의 생산 품질을 자랑하는 부산공장 임직원의 손으로 생산되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QM6의 차별화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은 해외 소비자로부터도 호평받고 있다.

또한 판매 시작 7분만에 1,000대 판매를 기록하며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새로이 개척한 'QM3'와 트렁크 적재공간을 혁신적으로 넓힌 국내 최초 도넛 모양의 신개념 LPG 탱크 개발 등 국내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2013년부터는 부산공장에서 무공해 순수전기세단 'SM3 Z.E.'를 양산하며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TWIZY'를 판매하기 시작, 혁신적 이동수단을 소개함과 동시에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르노삼성자동차는 2017년 1월, 새로운 중기 계획인 비전 2020 '고객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선포하며 새롭고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여 고객이 자부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품질에 대한 긍지를 기반으로 임직원 및 가족이 동반성장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전 2020은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워져 더욱 그 의미가 깊으며, 자발적인 목표 실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핵심가치인 긍정과 소통, 도전과 변화는 르노삼성자동차의 근무문화를 대변함과 동시에 다양한 직군의 임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기본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2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 3위, 1등 수준의 품질 그리고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내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갖춘다는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강한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환경과 교통안전을 우선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자동차 제작사로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eco ACTION 캠페인'은 에코 드라이빙 스쿨, 트렁크 비우기, 차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 등의 세부 캠페인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순수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에코투어'를 진행해 참가자에게 직접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동 역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 최초로 교통안

전 교육에 코딩과 로봇을 접목시킨 '어린이 교통안전 코딩·로봇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고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형도로에서 자동차 로봇을 코딩으로 운행하며 다양한 교통 상황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년 자동차 관련 학교, 학과에 교육 교보재(차량과 엔진 등)를 기증하고 있으며, 부산 산복도로 '옥상달빛길'의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1. 비전 2020 '고객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2. 어린이 교통안전 코딩·로봇 워크숍 현장



3. 환한 미소로 웃음 짓는 직원의 모습 4. 부산 마린시티 요트 경기장에서 QM6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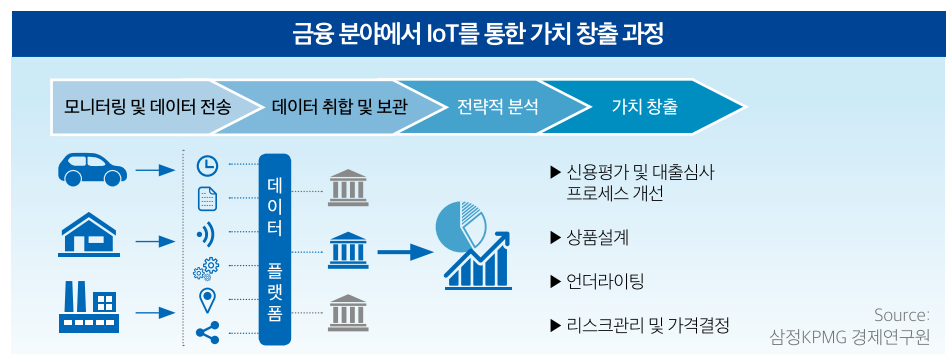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금융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금융산업에 상당한 파급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는 ▲D&A(Data & Analytics),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 ▲사물인터넷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반 기술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본격화,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간편화 및 다양화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는 모습은 M&A 동향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세계 금융-ICT 산업 간 M&A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금융-ICT 산업 간 M&A 건수는 2010년 223건에서 2016년 47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금융-ICT 산업 간 M&A 건수는 2015년, 2016년 각각 8.5%, 15.4% 증가했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M&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외 선진 금융사들의 선제적 대응 사례

세계적인 선진 금융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산업에는 5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고, 그 각각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선도 기업들의 모습은 기업들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첫째, 맞춤형 금융서비스 사례로는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의 맞춤형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다. 차량 운행기록 장치를 적용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물론 주행속도, 급가속·급제동 여부 등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입자의 위험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 플랫폼 구축 사례로는 캐나다 대형은행 TD Bank가 대표적이다. TD Bank는 소비자들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개인자산관리 플랫폼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Moven과 2014년 얼라이언스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 기술은 금융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기회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한 기술들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봤다.

를 체결했다. TD Bank는 예산을 짜기를 싫어하고, 자산관리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셋째, 신용평가가 체계 고도화 사례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대표적이다. 기존 금융권의 신용평가가 데이터 이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 · 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신용평가 데이터와 더불어, 우체국소포, 예스24, 카카오택시 등의 온라인 활용 데이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고객 선호도, SNS 활동 내역 및 관계 사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Hello Bank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사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Hello Bank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시중 은행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의 기본적인 입출금 업무부터 시작하여 중개, 보험, 대출까지 시중 은행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수단의 간편화 · 다양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사례로 카이샤은행(CaixaBank)을 꼽을 수 있다. 지급결제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핀테크 분야이다. 애플, 구글 등 내로라하는 IT 대기업들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다투어 출시했으며, 이베이,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가장 혁신적인 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카이샤은행도 간편 결제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카이샤은행은 이미 2014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자가 비접촉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점에서 구매대금을 쉽게 지불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4차 산업혁명을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준비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범용화된 금융 플랫폼을 확보하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시점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 및 현금 없는 사회를 선도할 지급결제수단 혁신 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맞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공조가 요구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실시하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교육기관은 유망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원가절감의 새로운 고려 요소 '관세'에 대한 모든 것!

보호무역주의, 한미 FTA 재협상 등 이슈의 근간에는 '관세'가 자리 잡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높여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FTA는 당사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 또는 철폐해 무역교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슈의 근간에 자리 잡은 관세에 대해 삼성KPMG 관세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



삼성KPMG 국제통상본부
김태주 상무

Q. 관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가절감 요소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세만이 가진 특징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관세는 일정 기간이 아닌 물품 수입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등과 구분됩니다. 둘째,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예외 없이 관세율 부과 목적으로 규정된 코드 중 1개 코드로 분류돼야 합니다. 어느 코드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셋째, 관세는 최초 납세의무자(수입자)와 최종 부담자(소비자)가 다를 수 있는 간접세입니다. 양자가 동일한 직접세인 법인세와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납부한 관세는 국내 판매 과정에서 원가항목으로 판매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Q.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관세를 절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A. '관세는 물품별로 적용세율이 다를 수 있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디지털카메라가 수입된 경우 적용 관세율은 0%지만, 캠코더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캠코더 기능이 별도로 장착된 디지털카메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디지털카메라의 그것인 0%일까 아니면 캠코더의 그것인 8%일까요? 만약 캠코더 기능이 별도로 장착된 디지털카메라의 최초 수입 당시 디지털카메라·캠코더·캠코더 기능이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분류하는 코드가 존재했다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분류 코드만 존재했을 뿐 기술 융합 및 복합 신상품인 캠코더 기능이 장착된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돼야 할 코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법리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물품의 최초 설계 때 기본기능이 캠코더가 아닌 카메라로 돼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결론이 내려져 관세율 0%가 적용되었습니다.

Q.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관세를 활용한 원가절감 요소는 기회일까요?

A. 관세율 개정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입법을 기다리는 사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융복합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한마디로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기술 융복합에 대한 깊은 관심 및 지식을 가지고 관세를 원가절감 요소로 판단한 기업들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가절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우선 수입자가 납부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라고 안이하게 생각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관세가 원가 절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 상식은 무엇일까? <맛있는 경제>에서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시사 용어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최근에 이슈를 모은 시사 상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빅블러(Big Blur)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업무 권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급변시킴에 따라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빅블러’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IT 기술과 금융의 접목으로 우리 사회는 현금 이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카드가 사라진 사회로 접어들게 됐다. 또한, 핀테크 업체들이 등장하며 송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도 ‘빅블러’ 현상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포노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전화기)라고 부른 데서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이 2007년 등장했지만, 2015년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성인의 80%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인간 생활과 밀접해지며 노모포비아(Nomophobia)를 겪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포비아는 ‘No mobile phobia’의 줄임말로 휴대폰이 없으면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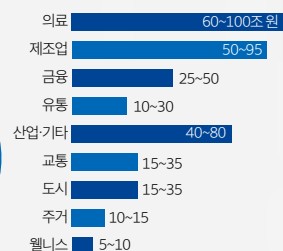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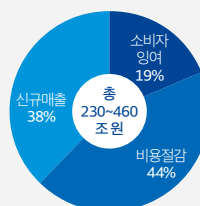
출처: 다음백과

4차산업혁명 선도로 2030년 460조 경제효과 창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2030년 최대 46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따른 총 경제효과를 2022년까지 128조 원, 2030년까지 460조 원으로 예상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경제효과 분야별 경제효과

2003년 기준(백만인 분석)



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인재양성소

Talk + Play + Love

행복충전소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본부원과 하나를 이루는 Deal Advisory3본부

<Culture Relay>는 삼정KPMG의 각 본부 문화를 살펴보는 칼럼으로, 이번 호에는 Deal Advisory3본부(이하 DA3본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DA3본부는 여러 국적의 인력이 다양하게 구성된 본부로, 서로 화합을 이루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만의 색다른 문화 활동을 소개한다.



해외 출신 인재들을 위한 멘토-멘티 활동 ★

DA3본부는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는 본부로,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유독 많은 본부다. 이에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구성원을 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온 인재들이 한국에 빠르게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A3본부는 멘토-멘티 활동으로 신입 입사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려주고, 이끌어 주고 있다. 이때 외국에서 성장해 정착한, 즉 비슷한 배경을 가진 멘토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준석 Manager는 “다양한 본부원들이 구성된 본부이지만, 그 어느 본부보다 단합력이 뛰어난 것 같다. 멘토-멘티 활동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것도 큰 힘이지만, 김진만 본부장님 특유의 친근함이 본부원들을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수평적 문화가 다양한 본부원들의 개성을 살려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영어가 필요하기에, 영어로 말하기가 어려운 본부원들을 위해서 메신저 등 일상 대화를 나눌 때 영어로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칭찬합시다! 우수 성과자 시상식 개최 ★★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DA3본부는 매년 송년회에서 본부원들의 투표를 통해 그 해에 ‘가장 고생한 Staff’ 혹은 ‘우수 성과자’ 등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본부원에게는 소정의 선물까지 전하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PPC Officer인 이준상 Director는 “연말에 각종 방송에서 시상식을 하듯, DA3본부도 한 해 동안 수고한 본부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본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성취감도 느끼고, 또 수상하지 못한 본부원들에게는 내년에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로 시상식 후에는 수상한 본부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또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도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DA3본부는 저녁 있는 삶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높이자는 의미로 정시 출퇴근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 김진태 Manager는 “저녁 개인 시간을 통해 Refresh 하니,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진 듯하다. 또, 본부장님께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자녀를 유치원에 등교해야 하는 날은 유연성 있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

가자! 영국 런던으로!

FY17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스토리



‘인재가 소중한 자산’인 삼성KPMG는 3년 연속 S.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개의 팀이 2주간 영국 런던으로 연수를 떠났다. 어학 수업, KPMG UK Office 방문, 무엇보다 영국 곳곳을 둘러볼 자유 여행의 시간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S.Manager들의 생생한 연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9월 17일~10월 2일, 2차수로 연수를 다녀온 S.Manager들이 KPMG UK Office를 방문한 모습

2. EF 어학원 가는 길



가족과 함께 영국의 문화를 즐겼던 행복한 시간

IM2 윤지수 S.Manager

연수 기간 중 어학 수업을 받은 EF 런던 어학원은 워터루역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워터루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의뱅크사이드 쪽에 별도로 숙소를 얻어 지냈는데, 오전 8~9시 사이 제가 학원 갈 때쯤 워터루역에서 뱅크사이드(은행 등 업무 빌딩 밀집지역)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몰려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풍족하고 여유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영국 런던도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치열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학원에 가서 그런지 공부부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어학원에 들어갔고, 한국에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모인 어학연수생들은 모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EF 런던 어학원에는 영국에서 가까운 나라에 사는 유럽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원어민처럼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틈에서 저는 자유롭게 토론은 못 했지만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머릿속에서 영작하며 토론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유럽 학생들에게 자극을 받아 돌아오자마자 법인에서 지원하는 EF 온라인 학습을 신청했습니다!

런던에는 박물관, 미술관이 많고, 요일에 따라 야간 개장하는 곳도 있어서 수업 후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주요 작품만 찾아 다녔다면, 지금은 스스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눈을 갖게 된 것인지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작품을 나만의 시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와 예술 작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부하여 더욱 깊이 있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갔던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미술관에서는 그림을 감상한 후 느낀 것을 본인만의 그림으로 그리는 공간이 있었는데, 제 첫째 딸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했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장에 대해 고민하다

Deal Advisory2 윤여준 S.Manager

학창시절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고, 2016년 KPMG UK Office 파견근무를 다녀온 저는 영국과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S.Manager 승진자 연수를 통해 영어 연수뿐 아니라 과거 생활했던 런던의 방방곡곡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인 내 다양한 본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 업무의 다양성 확보, 본부 내 협업 기회, 스펙트럼 확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거리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Pub에 저녁마다 모여 앉아 맥주 한 잔씩 기울이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동료들이 각 본부 내에서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험이 향후 삼정KPMG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런던 외곽에서 한인타운 방문 및 골프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영국은 놀라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큰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여가를 즐기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연수는 잠시나마 치열한 업무에서 벗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해외연수를 함께한 동료들과 식사하며 찰칵! 4. 주말에 동료들과 골프장에서 브이(V)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한 나날들

Domestic Tax2 최세훈 S.Manager

영국 런던에서의 연수는 어학 이외에도 한국 경제와 삼정KPMG,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극들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자유시간 중 바스와 스톤헨지, 옥스퍼드 등을 다녔는데, 바스에서 18세기 창문세의 흔적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세는 잉글랜드에는 1696년 도입돼 1851년까지 지속된 조세제도로, 집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적에서 '창문세'를 접했을 때, 이것을 불공정하고 수준 낮은 조세제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2주 이상 잉글랜드의 쌀쌀한 기후에서 생활하면서 이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문세'를 회피하기 위해 멋진 건물을 벽으로 다시 막아 스스로 일조권을 포기하고, 더구나 조세회피 사실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점을 감수해야 하는 그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저는 이 제도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빠진 경우 등에 있어 조세회피를 용인하되 사회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제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조세제도가 존재하나, 어쩌면 '창문세'와 같은 제도에 비해 얼마나 더 진일보된 세제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스 방문이었습니다. 4차 산업사회를 맞아 합리적인 납세자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면서도 단순한 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바, 특히 그 선두에 삼정KPMG Tax가 앞장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면 좋겠습니다.



5



6

5. 빅벤을 배경으로 하나둘! 찰칵!
6. 바스에서 본 창문세 회피를 위한 흔적들

해외연수 중 삼정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좋았던 순간은?

FY17 S.Manager 승진자들은 해외연수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오랜만에 회사를 벗어나 영국 런던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이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과 함께 살펴보자.

영국의 매력은 잘 보존된 건물들과 대자연

영국에 와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날씨'였다. 하루에도 4계절이 다 있는 영국 날씨는 정말 익숙해지지 않았다. 또한 지하철뿐만 아니라, 때때로 잘 터지지 않는 핸드폰도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영국에서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걸었을 돌 길을 걸었고, 수백 년 전에 사용했던 건물에서 다양한 그림과 전시품을 구경했으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대자연을 느끼고, 사람을 친근해 하는 공원에 사는 동물들과 함께 놀았다. 처음 도착해서 느낀 불편함은 곧 익숙함에 묻히고, 영국의 다양한 매력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다. 2주동안 영국은 나에게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DPP 양유정 S.Manager



버스킹 노래 들으며 템즈강을 바라보던 순간

런던은 3번째 방문이었음에도, 볼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은 도시였다. 런던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많은 뮤지엄에 가보고, 뮤지컬도 많이 보고, 런던 시내와 공원을 많이 걸어 다니며, 런던의 문화를 깊게 접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 감사하다. 런던의 프림 로즈힐 공원, 잔디 언덕에 앉아 런던 시내를 내려다 보며 계속 있다가, 노을이 지던 것까지 보다 온 날이 제일 생각난다. 인위적이지 않은 공원도 좋았고, 평화로운 사람들도 보기 좋았고, 높은 하늘과 초록색의 잔디도 아름다웠다. 테이트모던 뮤지엄 카페 테라스에서, 버스킹 노래를 들으며 템즈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던 날도 계속 생각날 것 같다.

IA/FR 정승은 S.Manager

셜록홈즈가 살던 221b Baker Street에 방문한 것!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인 이 곳을 런던 연수 기간 동안 방문했다. 바로 셜록홈즈가 살던 221b Baker Street. 런던에 오면 꼭 가야 한다는 장소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 셜록홈즈의 주인공이 살던 곳을 방문하니, 마치 그가 정말 살아 있는 것 같다는 착각도 들었다. 내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이곳에서의 경험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ITC 강영빈 S.Manager



골프장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본 시간

오전에는 어학연수 수업으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동기들과 관광, 레저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골프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골프 발상지인 영국 현지 골프장 체험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국내 골프 산업과 다른 점들을 직접 체험하며 국내 골프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연수 후반에는 연수원 레지던스의 외국인 룸메이트와도 친분이 쌓여 밤새 서로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 중간 자유 여행기간 이후 다시 런던에서 만난 동기들과 와인을 기울이며 연수 기간이 끝나가는 아쉬움에 늦은 시간까지 서로가 지내왔던 경험, 향후 계획과 KPMG의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2주간의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앞으로의 다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원동력이 되었다.

Deal Advsiory2 김태용 S.Manager



손흥민이 멋진 첫 골을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한 행복!

런던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13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리의 Mr. 손(손흥민 선수)이 출전한 경기(토트넘VS도르트문트)를 가까이서 직접 보는 행운을 누렸다.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관중수와 그들이 뿜어내는 함성소리도 느껴지던 긴장감도 잠시, 경기시작 3분만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멋진 첫 골에 함께 있던 동료들과 뒤흔들기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선을 다한 선수가 교체로 퇴장할 때는 관중 모두가 기립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두근두근 생각이 날 정도였다. 선수들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니 전·후반 9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경기 결과는 3:1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의 승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Global Tax 김민지 S.Manager



동료들과 소통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2주간의 런던 어학 연수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히드로 공항에서 Pick-up이 어긋나서 2시간 이상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아가 될 뻔하기도 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는 조금은 이해 안가는 현실과 부딪치기도 하고, 어학원에서 만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 다양한 국가/연령의 사람들의 열정과 적극성에 놀라기도 했다.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경험은 같이 연수를 온 동료들과의 Communication이었다. 업무에 바쁘고 접점이 없어 알지 못했던 타 본부의 동료들과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MCS2 노진환 S.Manager





동료들과 함께한 봉사활동 체험기 봉사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단순히 쉬고, 놀고, 여행하는 휴가도 의미가 있지만, TP(Transfer Pricing)본부의 김태경 Associate는 좀 더 특별한 휴가를 위해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동료들과 봉사하며, 더욱 동료애가 돈독해졌고, 함께 한 봉사활동기이게 그 보람을 두배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부터 김태경 Associate가 들려주는 봉사활동 체험기에 귀 기울여 보자.



| 휴가와 함께 계획한 우리들의 봉사활동!

안녕하세요. 저는 TP본부에 김태경 Associate예요. ‘Channel’을 통해 인사하게 되니 기쁘네요. 입사 이래로 종종 주말 출근도 감행하며 계속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늘 함께 동고동락하는 본부 동료들과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계획하던 중에 ‘바다도 가고 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에 동료들은 기쁘게도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이를 계기로 본부 동료인 구현모 Senior, 남종우 Associate, 손창화 Associate, 송민석 Associate, 윤형석 Associate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계획된 봉사활동을 삼성KPMG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Talk+Play+Love’ 프로그램도 신청했지요. 우리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비롯해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특별

히 제가 한 달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는 곳인데, 친한 동료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어 더욱 설렜던 것 같아요.

손자 · 손녀가 된듯 마음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까지

우리는 2인 1조로 요양원 각 층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보조 역할도 톡톡히 해냈죠. 함께 봉사에 참여한 남종우 Associate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의 식사 보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난다”며, “어르신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게 많이 고마우셨는지 식사 후에 손을 꼭 잡으시고 한참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들은 손길이 잘 닿지 않아 청소하기 힘든 곳까지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구슬땀을 흘렸어요. 세탁기에 도움을 받아



좌측부터 송민석 Associate, 남종우 Associate, 김혜정 직원, 윤형석 Associate, 김태경 Associate, 손창화 Associate, 구현모 Senior.

하긴 했지만 빨래도 깨끗하게 하고요. 하하. 그리고 특별히 손자, 손녀들이 그림고 적적하실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직접 작은 공연까지 준비해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손창화 Associate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 어르신께서 손자로 착각하셨다며, 순간 눈물이 왈칵 흐를 뻔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모두들 오랜만에 손자 노릇을 한 거 같아, 좀 더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 우리는 'Talk+Play+Love'로 지원받은 체험 활동비 전액으로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선물로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작지만, 꼭 필요한 물품들이기에 어르신들이 기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은 저녁에는 함께 수고했다는 의미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구현모 Associate는 열심히 봉사한 후 먹는 바비큐라 더욱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기억에 남을 휴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올해는 휴가를 동료들과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게 보냈기에, 특별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함께 보내는 동료들과 회사 밖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송민석 Associate는 이번 봉사로, 봉사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대요. "흔히 봉사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많이 베풀고 옮겨라고 생각하지만, 봉사 활동 끝에는 나누고 베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봉사활동을 자주하자고 이야기 해주더군요. 저 역시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동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일하고, 좋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멋진 삼정인으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파이팅! 힘내자!

가족 & 동료와 함께 만든 삼성인의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삼성KPMG는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Benefit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가 속한 유치원 및 학교에 선물하는 간식 비용을 지원하는 '아빠&엄마가 간다', 타 본부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식사비용을 지원하는 '삼삼오오'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삼성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빠가 간다

5살 생일을 축하한다! 사랑한다!

IA/FR 주우람 S.Senior

사랑하는 헤아에게,

2013년 8월 1일 아빠는 작은 기도를 했단다. '주니어야, 아빠 니가 많이 보고싶단다! 너무 서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 빨리 만나자.' '주니어'는 우리 헤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란단다. 그 기도처럼,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깜깜한 밤에 엄마, 아빠에게 반짝반짝 빛을 내며 찾아왔단다.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었지. 너를 만난 후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 그러다 헤아가 아프면 아빠, 엄마가 더 많이 아프고, 니가 웃으면 엄마, 아빠가 더 크게 웃었지.

이렇게 아빠가 우리 헤아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인 거 같구나. 헤아가 갓 태어나 아장거리던 때 아빠가 공부한다고 미국을 간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5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하여 단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헤아가 한 살 한 살 자라는 게 신기하고 대견하면서도, 지금 이대로 시간이 좀더 머물러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커나갈지 너무 기대돼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1. 딸의 유치원에 맛있는 간식을 보낸 주우람 S.Senior
2. 주우람 S.Senior의 가족 사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헤아의 5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어. 유치원 친구들, 유치원 선생님들과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아빠가 헤아에게 바람이 있는데 올해 12월에 남동생(태명: 핑크)이 태어나는데 우리 헤아가 누나로서 잘해줄 수 있지? 항상 동생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놀아준다고 말하는 헤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랄게. 아빠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구나.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주렴. 헤아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열심히 성장할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 헤아아~!

헤아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삼성KPMG는 임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를 증진시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모님을 뵙니다', '아빠&엄마가 간다', '삼삼오오', '리무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PPC 강경아 대리(kyungahkang@kr.kpmg.com)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삼오오



**항상 힘이 되는 동기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송찬보 Associate(B&F1)

삼성KPMG Benefits Program 중 하나인 삼삼오오 덕분에 입사 동기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함께한 동기들은 지난 Busy Season을 함께 보냈던 동기들입니다. 현재는 모두 다른 본부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다행히 모두 시간을 맞춰 삼삼오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삼삼오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많은 동기 및 회계사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KPMG에서로 이어지는
동문들의 인연**
김 참 S.Analyst(Deal Advisory1)

삼삼오오를 빌어 업무,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해 드문드문 만나던 삼성 KPMG 내 동문들과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같은 고향,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 중인 선배들과 그동안의 근황과 회사 생활, 커리어 고민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잦은 외근과 출장, 많은 업무량으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삼삼오오 등을 통해 더 많이 연락하고, 협업하여 삼성KPMG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개월 만에 성사된
우리들의 모임**
백정인 Senior(FS Tax)

삼삼오오 프로그램 덕분에 오랜만에 동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동기들과 이야기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일정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지만, 법인에서 지원하는 삼삼오오의 힘으로 3개월 동안 성사시키지 못했던 저녁 약속을 한 번에 성사시켰습니다. 하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rother Country, 터키의 문화와 에티켓

한국인에게 우호적이며 한결 같이 '코리아'를 'Brother Country'라고 지칭하는 터키인들. 이들은 자신들을 투르크인이라 부르는데, 투르크는 고구려와 동시대에 살았던 돌궐족의 다른 발음이다. 돌궐은 본래 북아시아에 뿌리를 둔 유목민족으로 고구려와 형제의 국가로 지냈다고 전해진다. 즉, 형제의 나라라는 기원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셈이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의 문화와 에티켓은 무엇인지 터키 Korea Desk의 이종상 Director가 소개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나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곳

흔히들 터키의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터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통계적으로 98%의 자국민이 이슬람교로 등록) 사회 전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 어느 곳을 가나 이슬람 사원을 볼 수 있으며, 하루 5번의 아잔(이슬람 사원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외침)소리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터키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새벽녘에 집 근처 사원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아잔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하여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응이 되어 아잔소리를 자잠가 삼아 아침까지 숙면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터키의 식당에서 돼지고기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일부 가게를 제외하고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은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깊이에 따라 히잡을 안 쓴 여성, 히잡만 쓴 여성, 얼굴 전체에서 눈만 빼고 천으로 가리는 여성도 있는데, 이들은 신념의 깊이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 터키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슬람문화'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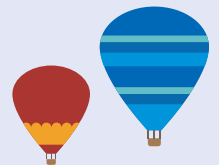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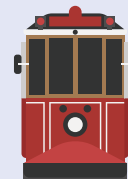
가까운 사이는 볼을 맞대어 인사하는 터키 사람들

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수로 인사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 남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성이 먼저 악수

이것만은 꼭! 터키 Etiquette Plus+

1 이슬람 금식월(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 대부분은 낮에 금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금식하는 무슬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을 들어내고 먹거나 과하게 음주를 즐기는 등의 행태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 터키인 대부분이 무슬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터키인과 식사 약속을 잡거나 같이 식사할 때, 상대방이 돼지고기를 먹는 지, 술을 마시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를 청하면 이성 간의 악수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인 경우, 이성 간 또는 동성 간 상관없이 서로 볼을 맞대어 인사하거나 볼 인사 후 서로 포옹을 합니다. 유교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볼 인사는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터키 사무실에서 동성 동료들이 처음으로 볼 인사를 시도해 왔을 때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망설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동료는 화내지 않고 볼 인사를 친절히 설명해주었기에 생애 첫 볼 인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인 상대방이 볼 인사를 해온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친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니,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개인 공간을 줄이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터키에서의 '개인 간 간격'은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히려 서로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 신뢰하고 친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도 나이, 결혼 여부,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일상적이며,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개인 간 좁은 간격은 터키에서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서양 나라들이 비즈니스에서 업무만 이야기하지만, 터키에서는 미팅 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들이나 낄새, 스포츠 등 가벼운 주제로 서로의 친밀도를 형성한 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친밀감이 있는 상대방과 비즈니스



1. 공원에서 만난 소풍 나온 터키소녀들 2. 이슬람사원에서 아내와 함께 3. 이슬람사원의 기도하는 터키인

스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비즈니스 상대방과의 식사자리나 취미활동 공유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CONTACT US

터키 KOREA DESK 이종상 DIRECTOR

Tel. +902123166000 E-mail. jongsanglee1@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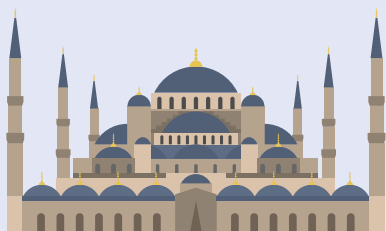
Global Etiquette

3 터키에서 손으로 오케이 모양을 만들면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오케이 모양을 만드는 것은 터키에서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4 터키인들은 줄을 설 때 굉장히 개인 간 거리가 좁아서, 앞 사람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벌어지면 그 틈으로 끼어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옆에 새로운 줄을 만들어서 기존 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터키에서 줄을 설 때는 항상 잘 살피고 처신해야 역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터키 Korea Desk

KPMG 터키는 터키 내 3개의 Office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이스탄불 Office에 자리한 Korea Desk는 2016년에 설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터키 현지의 한국 기업들에게 감사, 세무, 컨설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 터키의 Korea Desk는 터키 유일의 Korea Desk로서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터키에 진출한 그리고 터키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